

나는 멈춰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한다.

어떤 도전이든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고 싶어 여행을 떠났다. 쳇바퀴를 돌듯 끊임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다. <도전과 용기>는 그런 내게 던지는 질문이다. 쉼 없이 굴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도전할 수 있을까? 쳇바퀴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술한 고민과 방황 끝에 결국 나는 나의 길을 찾았다. 곳곳이 나아갔다. 쉼 없이 걸었다. 뻘뻘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며 여유롭게 걸었고, 고즈넉하고 한적한 시골길을 걷기도 했다. 퇴락별 아래서 땀을 흘리며 달리는 것도, 눈이 오나 비가 오는 날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땀뻑하게 걷고 또 걸어 목적지에 도달했다.

여행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주어진 일만 했던 내게 시위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퇴락별 아래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시위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이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표현과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폭력성.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와 절규들...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를 믿어보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바라고 저렇게 말하는 걸까? 왜 저 사람들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어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든 그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을 알고, 공감할 수는 있을까 고민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읽어내려 했다. 그들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당신은 왜 이곳에 있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곳에 온 건가요?" 그들은 나에게 대답해주었다.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나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의 욕구와 욕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렇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나다운 삶이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된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앎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다움이다. 쉼 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알못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과정 자체를 두려워한다. 선불리 시도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 도전해보면 어떨까? 술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옛그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촘촘하게 짜인 계획표처럼 매일 조금씩 성취하는 나날이 쌓여가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을 살피, 나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대로 행동하라.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여행 도중 들리게 된 한 역에는 돈이 없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왜 가난할까>라는 책을 읽고 한 달 동안 굶은 적이 있다. 뺏속까지 가난한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으로 읽었던 책이었는데. 뺏 속 깊이 가난한 자의 삶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뺏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출도 안 받고 월세방을 구해서 살다가 쫓겨나고 보증금마저 떼이고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 고금리 사채 빚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전셋집 전세금을 빼돌려 도주하던 사람 등등...

나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었다. 술하게 들었던 질문들이 떠올랐다.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핍박과 착취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그들의 삶은, 사실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했던 그 시작점부터 이미 불공정했는지도 모른다. 알пах하고 가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꺾끗이 버텼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렸을까?

첻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의 굴레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와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보았다.

1.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보다도 약자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2.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 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았다. 껌을 씹으며 가난하게 살지 않았고, 누군가를 돕거나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에 인색하지도 않다. 꺾끗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나이를 먹

어가며 점점 더 빈곤해진다.

3.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미움받을 용기>를 쓴 일본의 소설가 기시미 이치로는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용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책 속의 한 문장: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새로운 이를 만나는 것은 언제나 두렵지만 동시에 내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는 것 같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에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간다. 촘스키의 말처럼 인간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진다. 술한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새로운 관계도 맺는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선불리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레는 일이다. 그런 만남이 쌓이고 쌓여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만나고 헤어짐의 반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한다.

쉽 없이 이어지는 관계의 연속, 술한 인연으로 엮여진 우리는 어떤 인연이 될지 알 수 없다. 썸을 타던 연인이 이별할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 헤어져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알뜰게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매번 새로워진다. 선불리 단언하기 어려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만남'으로 시작되고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란 무엇일까?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읽으며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지는 과정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우선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겠지.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아야 할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줘야겠지.

나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선불리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뜰한 위로나 달콤한 말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자. 솔하게 겪어본 나만의 경험담이다.

이번 여행에서 그렇게 나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했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같이 밥 먹을래?"

"응. 같이 먹자"

몇 번의 대화가 오가다 결국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썸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그날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선불리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나와는 달리, 다른 나라로 여행을 온 듯한 낯선 느낌의 사람과의 만남이 좋았다. 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참 소중했다. <나 홀로 유럽>을 보면 언젠가부터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구절이 있다. 선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부담만 커질 것 같아서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솔하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다. 선부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서 멀어지는 것도 싫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려 한다. 뒷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어쩌면 나를 위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알пах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용기가 부디 빛을 발하길 바란다.

서경덕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책들은 일본에서 출간된 적은 없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그는 일본의 대형 출판사 중 하나인 쇼가쿠칸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를 통해 위안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역시 자신이 쓴 책이 해외에 소개되는 것을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매체가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감동적인 기사였다.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지만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전달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엿볼 수도 있어 흥미롭다."라고. 실제로 미국 매체에서는 여러 차례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되어 전해지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 일본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 이는 비단 여성 뿐만이 아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남성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글을 읽으면 대부분 공감하기 어렵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랬던 것 같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이 그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들에 대한 기억일 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언제나 과거로 회귀한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회상할 수는 없을까? 이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

다. 얼음을 깨트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전체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

물론 지금 나의 머릿속에는 소녀들을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한 상처는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도 정확히 인지해야만 한다. 단순히 아픈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일이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을 테니까.

이처럼 역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마주하고,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조각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때, 그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다. 최근엔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때론 몽클하게도 했던 누군가의 죽음과, 친구와의 이별까지 모두 다 잊은 지 오래되었다. 아 니,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서 소중함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모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존중 등 좋은 것들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야만 하는지 고민해본 적도 없었다. 그냥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주어진 삶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진실'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껏 살아온 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세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도망치고 싶진 않았다. 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단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독립유공자 중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들이 목숨 걸고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일했던 걸까?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분명 그들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테니까!

바로 '내가 만약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껏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었다. 내가 만일 앞으로 백 살이 된다면, 나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그 확신은 아직 100%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삶,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겠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또 달라졌다. 성장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다.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뿐이다.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현재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한다. 변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건 아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변화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행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 그동안 잊고 있던 나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 또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생각을 들을 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느끼는 감정들도 새롭게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그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나는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런 나에게 한 친구가 말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바로 시작해도 돼. 어차피 인생이 다 똑같아." 이 말은 마치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맞아. 맞아. 우리 모두 어제보다 오늘, 내일보다는 당장 이번 주에 집중하는 게 좋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멈추고, 현재에 충실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난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 답을 찾아야만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확신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명심하자. 이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며,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온한 상태가 된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서로간의 관계가 돈독해짐을 느낄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난 늘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지만 말이다.